지방신문협 3당대표 인터뷰로 본 주요 정치현안 입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존폐 이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당의 대표가 이견을 나타내 오는 2010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각 당의 대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여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지난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과 공동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해 여야 정당의 대표들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선 기초단체장의 공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 입장을 나타냈다.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오는 2009년 시작될 선거법 등의 개정을 놓고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올해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내년부터 논의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의 보수화를 내세워 정략적인 개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견제 심리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자유선진당은 개헌이 빨리,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지방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장기적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인식을 나타내 이른 시일 내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3개 정당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임동욱 기자

■주요 정당 대표 정치 현안 입장 비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지방행정구역 개편	-개편 필요성 공감 -시기상조, 시간을 갖고 점차적 추진	-개편 필요성 공감 -장기적 과제로 추진	-개편 논의 필요 -5~7개 광역정부로 재편하는 '강소국연방제' 도입
기초 단체장·기초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기초 단체장 공천 유지 -기초 의원 공천 폐지 및 소선구제 도입	-기초 단체장 공천 폐지 -기초 의원 공천 유지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 -시간을 가지고 추진	-개선 필요성 공감 -장기적 과제로 추진	-개선필요성 공감 -논의 시작 필요
지역신문발전기금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
개헌시기 및 방향	-2009년께 논의 필요	-현 시기 논의 부적절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내 논의 바람직	-빠른 시일내 논의 -국가개조 차원 접근 필요

한,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로 변경 강력 주장

한 "내년부터 개헌 논의" 민주 "현시기 부적절"

김옥희씨 '공천 장사' 혐의 더있다

"서울시의원에 비례대표 제의"

뭉칫돈 제3자 전달 정황도

국회의원 공천을 빌미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 씨는 김 이사장 이외의 다른 인사에게도 비슷한 제의를 하며 '공천 장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옥희씨는 김 이사장에게 접근하기 직전인 지난 1월 브로커 김모씨(구속)의 대학 동창인 서울시의원 이모 씨가 국회의원 출마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브로커 김 씨와 함께 이 씨를 만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김옥희 씨는 이 씨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추천 몫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다. 내가 김윤옥 여사의 친언니이니 공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그러나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김 이사장을 이들 두 김 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황에 비춰 김옥희 씨는 당초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김 이사장에게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한 진술과는 달리 처음부터 자신이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등에 업고 브로커 김 씨와 함께 '공천 장사'를 하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지검에서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또 김옥희 씨가 브로커 김 씨와 함께 받은 30억3천만원의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김옥희 씨의 공천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 씨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자신과 아들 계좌에 넣어 보관했으며, 이후 이 계좌에서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인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수표 30억원은 받은 즉시 계좌에 넣지 않고 한동안 수표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신과 아들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30억원 중 25억원은 김 이사장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 씨의 계좌에서 수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출금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미변제된 5억원 중 상당액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 5억원이 김 씨와 브로커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돈의 행방을 집중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야 "'공천 장사' 김옥희 사건 특검하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은 의혹이 터지자 야당들은 축소 수사 의혹이 있다며 특검수사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3일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30억원을 준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사기피해자로 둔갑시킨 느낌"이라며 "대통령 친인척 사건에 대해 축소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김옥희씨와 관련된 비례대표 공천관련 뇌물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김옥희씨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최고위층과 관련된 비리인 동시에,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추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친인척, 최고권력층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사건 축소 왜곡해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지정해준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를 검찰에만 맡길 것만 아니라 특검수사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에도 김유정 대변인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축소·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나라당 대변인단의 변명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가칭 대통령친인척비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靑친인척 비리' 의혹 확산에 고심

한나라당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구속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이 '공천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사전점검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공천 로비와는 관계없는 김옥희씨 '개인 비리'에 국한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돼 당에서 직접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옥희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다른 라인을 통해 공천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야당측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라며 "김씨가 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2009학년도 시험속보
유·초등 - 1차(11월 2일), 2차(11월16일)시행 / 중등 : 1차 (11월 9일), 2차 시험(12월14일) 시행예정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 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大모집!
곽내영교육학 현재 상담 접수중 개강 9월 5일
곽내영고시학원 http://www.naeyoung.com
수강문의 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 중등 2차 시험대비반 및 3차 심층면접반 개설예정

강좌개설

교육학	곽내영
유아교육	임미선
전공국어	최병해
국어교육론	마운용
전공수학	임대성
전공생물	강치욱
전공물리	장영민
전공미술	김성희
전공체육	김용호
일반사회	김형수

유·초·중등 임용고시의 모든것!
처음시작이 합격을 좌우한다!
새롭게 개편된 3단계 시험제도 - 적응하는 자 만이 성공 할 수 있다!
교원임용 무료공개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 처음시작에서 최종합격까지 전문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 제시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 곽내영고시학원은 교원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난다!
곽내영교육학 인터넷동영상
에듀뷰넷 www.eduview.net 02)816-1646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月 26日 원서접수 8월18~8월27일 학원에서 접수대행
7月~ 문제풀이특강 8月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9月~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10月 동형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국비무료 고용보험 환급과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옆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확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상담접수중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지급 지원
▶시 험 :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정 교관 세무 법원 검찰 철도 교정 보호 보훈 복지 군무 토목 건축 전산
하반기 시험
◉전남 : 9급 세무직 및 전문직 9월 27일 209명 모집
◉전북 :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모집
◉중앙선관위 :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개강 8월 1일(주·야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준)회원 80만원
◉1년 (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으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수강증 1개로 2개 강좌 동시수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